

어르신 일자리 5만개 늘리고 병사 봉급 15% 올린다

당정 내년 예산 편성 합의...일자리·경제약자 지원 강화

직장 어린이집 확대·기업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 두배 늘려

정부는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 5만개를 증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를 1만3000여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어르신 일자리' 5만 개 증설 사업에는 460억원

의 예산이 소요되고, 청년창업프로그램 신설에 2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로 절반씩 재원을 대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지원에는 6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영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3% 올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을 3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은 당초 올해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원과 190억원 늘릴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원 늘어난 52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 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 509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기간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수기 설치와 대청소비 지원 예산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공관 행정원 처우개선 예산 147억원 증액 ▲인도를 비롯한 신시장 개척 자금 239억원 증액 ▲연안여객선 신규 건조 펀드 조성 예산 100억원 신규 반영 ▲방탄·방검복 구입비 29억원 신규 반영

▲참전·무공영예 수당 2만원 인상(18만원→20만원) 등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최대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총지출 증가율을 추수한다"고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손에 손잡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신기남, 안민석 의원 등이 3일 광주시를 방문, 국비지원방안을 협의한 뒤 윤정환 광주시장 및 지역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文 '호남 민심 달래기'

광주 예산정책협의회... "100만대 생산기지 등 당 차원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광주시를 방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3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지원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신기남 참총은 지방정부위원장, 안민석 예결위 간사,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장병완·권은희 의원 등이, 광주시에서는 윤정환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광·전자 융합 친환경 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자

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등 총 10건의 핵심 국비사업의 예산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또 ▲광주교도소부지 무상양여(범부부 소관) ▲산업시설(공장)용지 수요면적 확대(국도교통부 소관) ▲무등상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 3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사업 육성과 물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역발전의 중대 전환점이 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당은 지방교부금 개선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 광주가 명실상부한 자동차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사업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남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며 "정풍운동"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적정만 하지 말고 혁신에 참여하라"고 격려했다.

문 대표는 이날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혁신이 기대만큼 되지 못한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다들 혁신의 벽돌이라도 하나씩 놓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일 김한길 전 대표가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애를 쓰긴 했지만 국민의 희망을 자아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권일기자 cki@

유선호·장세환 전의원 새정치 탈당... "신당 갈 것"

추종했던 신당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무소속 전정배 의원이 지난 2일 조만간 신당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유선호·장세환 전 의원이 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신당행을 선언했다.

유선호·장세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친노 패권주의로 인한 극심한 내부 갈등과 기득권 안주로 야당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며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한 희망 없는 불임정당을 벗어나 신당 태동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호 전 의원은 전남, 장세환 전 의원은 전북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관심이 다시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탈당을 계기로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과 함께 내부 계파 갈등도 다시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일자리 해결 '사회적 기구' 만들자"

이종걸 새정치 대표 연설... "여야 손잡고 재벌개혁 추진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을 양보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 정시 퇴근제, 여름집중휴가제 등을 제시했고, "재벌 대기업은 '이익'을 양보해달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처음"

이라며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마련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과, 벤치마크 차단을 비롯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소개한 뒤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이 '5+3 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자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구 획정기준 내주 마련 목표"

정계특위 2기 첫 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을 내 주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문정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연 의원을 각각 재선임하

고 2기 활동에 들어갔다. 정계특위는 오는 11월15일까지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적인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유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이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